

초등 예비교사들이 바라본 학교공간과 지리교육

윤옥경*

Elementary School Space from the Perspective of Pre-service Teachers and the Implications in Geography Education

Okkyong Yoon*

요약 : 이 연구는 초등 예비교사들이 4주간의 초등학교 교육실습기간동안 관찰한 기록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공간을 이용하는 방식과 교사와 학생이 학교공간과 관계하는 방식, 그리고, 학교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조사했다. 초등 예비교사들은 시설의 안전성과 공간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초등학교공간은 학습지도에 유용한 구조가 아니라고 인식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공간에서 자기 공간과 타자의 공간을 구별하며, 타자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다른 반 교실에는 출입을 꺼린다. 중앙현관이 과거에는 학생들의 접근이 배제되었지만, 오늘날에는 학생들의 활동 공간으로 제공되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공간에 대한 인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 주체의 의견과 의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주요어 : 예비교사, 초등학교, 학교공간, 교육공간, 지리교육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how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use school spaces, how teachers and students are related to school spaces, and changed in their perceptions about school spaces using records observed by pre-service teachers during the four weeks of practice teaching in elementary schools. Pre-service teachers recognize that elementary school spaces are not a useful structure for instruction in terms of facility safety and space efficiency. Elementary school students distinguish their own space from the space of others in the school, and are reluctant to enter the other classrooms that they perceive as spaces for others. The main entrance of the school was inaccessible to students in the past, but today it serves as the activity space for students. This case suggests that the perception of school space is not fixed but can be changed by the opinions and wills of the educational subjects.

Key Words : Pre-service teacher, Elementary school, School space, Educational space, Geography education

I. 서론

가고 싶은 학교! 이 짧은 한 구절은 교육공간의 지향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교육공간의 현 주소를 암시한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 주변 환경은 큰 변화가 있었지만, 학교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세트나 영화의 무대로 등장하는 학교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 변함없는 공간이다. 학교라

는 공간은 학교를 거쳐 간 누구든지 경험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교복과 함께 '교실'의 모습은 학교라는 곳이 주는 이미지를 잘 반영하는 것 같다.

인간이 머무는 공간의 중요성은 다각도로 부각되고 있다. 신경건축학 분야에서는 환자의 치유와 병원의 환경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 등 공간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Stemberg, 2009). 병실의 창으로 자연풍경을 내다 볼 수 있는 경우, 환자의 치유가 더 빨라졌다는 사례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okyoon@cje.ac.kr)

와 같이, 최근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장소를 만들기 위한 시도와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 환경의 질 또한 중요하므로 석면 건축자재의 제거 및 공기 질 관리 등에도 교육당국은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에 애쓴다. 교육 환경이란 물리적인 교육공간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교육의 공간과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둔 '공간의 변화'가 중요하다(임정훈, 2018).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명시적 교육과정이 수행된다. 하지만 학교는 동시에 잠재적 교육의 장소로서 교육 활동의 분위기 구성에 관여한다.

교육의 변화를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 꾀할 수도 있지만, 교육주체들이 만들어 가는 교육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다(배지윤 등, 2019). 그동안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 학생의 학습동기 자극 등 수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교육 현실에서 교육 주체들은 행복할 것 같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교공간이 가지는 특성과 이를 이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학교공간에 대한 인지, 경험, 이들이 학교공간과 관계 맺는 방식을 탐구하고, 나아가 학교공간이 가지는 지리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교육과 공간

1. 교육공간으로서의 학교

교육공간이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화랑도 교육의 공간인 산수(山水), 전통사회의 교육공간이었던 불교 사원, 조선시대의 서원, 서당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괄한다. 또한 공식적인 교육기관 이외에도 박물관이나 가정집 또한 교육 공간에 포함될 수 있다(한국교육사학회 편, 2011). 이 연구에서 다루는 교육공간은 시기적으로 근대 이후 교육 체계에 따라 운영된, 외관상의 학교 건축물과 부속시설을 갖춘 '학교'로 한정한다. 학교는 근대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서, 이 글에서 논하는 교육공간은 곧 학교공간을 의미한다.¹⁾ 학교 건축을 분석하는 데에는, 교육공간이 유동적이고 변화가능성이 있는, 고정적이지 않은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Gulson and Symes, 2007).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또한 '교육

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이라는 성격의 장소이다(이동민, 2012). 이 연구에서는 학교공간을 살펴 볼 때, 외관상의 건축물과 부속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그 곳에서의 행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관계 맺기 양상 등에 주안점을 둔다.

임정훈(2018)은 학교공간에 대해,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기능과 효율, 비용적 측면보다는 '관계'의 경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교(교육) 공간이 편안하고 안락하며, 안전하고, 호기심과 감수성을 깨우는, 창의성을 자극하는 공간, 협력과 소통이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학교에서 다양한 관계와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학업만 강요하기 보다는 다른 것 속에 학업이 스며드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공간에 대한 관심은 공간 안에서 올바르게 존재하는 양식이나 공간에 대해 올바르게 관계하는 방식의 문제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인간에게는 결속을 느끼며 뿌리내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는 낮은 공간이 아닌 어떤 공간의 특정한 자리에 친숙해지는 것으로서, 인간 '거주'의 기본적 요소이다. 초기 아동기에는 이러한 아늑함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공간은 내적인 안전의 영역과 동시에 넓은 세계, 유희적인 먼 곳 등의 보다 큰 영역이라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며 인간은 그러한 공간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공간과 교육'의 맥락에서 추구하는 물음이다(Bollnow, 1971).

편안한 집을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접근하면, 우선 현재 나의 주거상황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것과 바꾸고 싶은 것 찾아보기, 이상적인 집 살펴보기, 나의 주거욕구 파악하기 등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다(Perfahl, 2015). 학교공간을 개선하는 것도 이러한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다. 학교공간 개선의 출발점에서 '익숙한 공간 다시보기', '학교 안팎의 환경 살피기'가 우선되어야 한다(홍경숙 등, 2019). 그래서 학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범교과활동으로 'My favourite place in school'²⁾과 같은 주제의 글쓰기 활동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학교공간은 학교마다 처해있는 위치와 환경이 다르므로 그 특성에 맞는 변화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김경인(2014)과 工藤和美(2004) 두 건축가가 수행한 학교공간에 대한 프로젝트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들 두 건축가는 각각 학교공간의 특별함을 인지하면서 학교공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두 건축가의 저술에서 소개된 각 학교의 사례에서는 학교공간 개선을 위한 예산도, 주변 환경과 주민들의 요구도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 다른 사례, 서울 삼양초등학교에서는 학교공간을 변화시키는데, 학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학생들의 바람을 담아내려고 했다(홍경숙 등, 2019).³⁾ 이처럼 학교공간의 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이다.

2 초등학교공간의 구성

학교공간은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강기수·김정호(2013)는 (일반)교실, 다목적교실, 특별교실, 도서실 등의 교수학습공간, 행정·사무업무를 담당하는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등의 관리지원공간, 운동장, 강당(체육관), 복도 등의 행사놀이공간, 화장실, 보건실, 급식실 등의 보건위생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에서 교수학습의 중심 공간인 교실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 내의 놀이 및 활동 공간, 학교 주변 공간으로 확장하면서 아동의 경험과 교육공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실

교실은 교사 각각의 개성이 반영된 곳이며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핵심적인 공간이다. 최근 수업에서 어떤 교수학습방법의 적용과 그 성과에 대한 연구 대신 교실의 공간성과 생태성을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등 교실을 있는 그대로 들여야 보려는 움직임이 있다.⁴⁾

학교의 교실 중 일반교실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면, 교실의 모습은 학습활동과 연계된 좌석배치,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모듈활동 공간 배치, 교재교구 비품 보관 공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전개된다.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교의 교실은 학생지도, 업무, 개인시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며, 하루 일과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교사들은 자신의 학급교실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공간을 디자인하고 구성하며 활용한다. 교사들은 교수학습방법에 따라 책걸상의 배열과 배치를

다양하게 하며,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을 게시하고 교구, 교재 등을 보관하는 공간도 마련한다. 또한 학생들이 놀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한다(김신지, 2018).

대부분 학교의 교실 모양은 네모난 사각형이고 이 교실이 일렬로 배열되며 복도를 통해 연결되는 구조이다. 우리나라에 근대식 학교가 설립된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학교 교사(校舍)의 구조는 관리와 통제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고, 1969년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거한 '학교표준설계도'에 따라 지어진 학교의 모습이 오늘날까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학교의 전형적인 구조이다(한국교육사학회 편, 2011). 이에 대해 열린 교실과 같이 기존 교실과 같은 구조의 고정적인 공간 이용을 극복하려는 시도도 있다.

2) 놀이 및 활동 공간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중등학교의 운동장과 달리 놀이 시설이 있는 놀이터가 있다. 이는 초등학교의 발달에 놀이 활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놀이터에 흔히 3S라고 하는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의 놀이기구가 있고 체육활동을 위한 운동기구 등이 있다. 놀이터란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곳으로 재미, 도전, 안전이 갖추어져야 한다. 초등학교 운동장의 놀이터에 7세 이하 어린이가 놀만한 수준의 놀이기구만 있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홍경숙 등, 2019). 놀이기구는 놀이터의 주인이 아니라 보조인데 아이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아동들에게는 놀이기구보다 무정형화된 놀이터나 모험놀이터에서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창의적 활동을 할 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이지영·남상준, 2018). 학교 운동장은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창의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만 놀 수 있다고 하니 학교 놀이터의 중요성이 더해진다.

아동들은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만 노는 것은 아니다. 학교 전체의 놀이 환경을 조사하면 학생들의 놀이터는 복도, 현관, 교실 등이 포함되는데, 이경한(2016)의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쉬는 시간 놀이장소로서 가장 선호하는 곳은 운동장, 교실, 복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놀이장소에 대한 학년별 선호도 조사 결과는 6학년이 운동장에서 노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동들은 어른들이 지어준 공간에서 그곳을 목적과 기능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응용한다. 때로는 과도하게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위험스런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동들에게는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교육에 도움이 되며, 놀이터에서 벗어난 장소에서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내성이 길러질 수 있다.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의 노는 동안의 안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놀이터에 대한 기존의 개념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순천시에서는 아이들이 설계 아이디어를 반영한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하였다.⁵⁾ 또한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의 질에 문제가 발생하고 학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내놀이터를 조성한 사례도 있다. 아동들에게는 직접 (어느 정도 완화된) 위험을 접할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하다(홍경숙 등, 2019).

3) 학교를 넘어서 주변으로

아동들은 본래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이어서 주변 환경을 탐구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곤 한다. 어린이들에게는 좀 어정거리거나 몽상을 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다(Scoffham, 2010). 아동들은 학교 주변이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비밀장소를 두기도 한다. 아동들의 행복은 그들의 발달 특성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장소 경험이 제공될 때 충족될 수 있어, 아동들은 비밀 장소 만들기 활동을 통해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장소 경험을 할 수 있다. 아동들의 야외 비밀 장소에서는 모험 활동, 탐색 활동, 장소와 교감하는 활동, 또래집단과 교류하는 등 주변에서 놀잇감을 찾아 즐기는 탐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장소 경험은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킨다(신재철, 2013).

학교를 넘어서는 주변은 서울 삼양초등학교와 광주 어룡초등학교, 두 사례처럼 초등사회과 지리교육의 학습과 연결하여 활용될 수 있는 교육공간이다. 서울 삼양초등학교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안전지도 만들기' 활동을 했는데, 학교 주변의 어느 곳이 안전하고 위험한 지를 지도에 직접 표시하고 사진을 붙이는 과정에서 주변을 이해했다. 그리고 이의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 바깥의 공간을 새롭게 볼 수 있었다(홍경숙

등, 2019). 어룡초등학교에서는 마을공동체협력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하교 후에 놀 수 있는 공원이나 놀이시설이 필요함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안하는 글쓰기활동을 하였다(어룡초등학교 교직원, 2017).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공간의 변화를 느끼고, 자신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공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야말로 교육적 측면에서 공간과 관계 맺기를 배워가는 과정이다.

3. 지리교육과 학교공간: 일상생활과 학습의 접점으로의 학교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 그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은 그 공간을 새롭게 인정하고 새로운 의미를 밝혀가는 과정이다. 학교공간에 의미를 부여할 때, 권력자의 이념이 투영된 공간이었던 학교는 삶과 관련된 공간으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학교는 어른들이 만든 공간으로서, 아동들은 어른들이 만든 공간을 제공받지만, 아동들은 그 공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새로운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만든다(박승규, 2004). 교육공간은 권력과 지배의 공간, 학습자의 삶과 분리되어 타자화된 공간으로 인식되었는데(나병천, 2008), 학생들은 학교공간에서 포섭과 배제의 대상이었지만, 때로는 공간의 용도와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저항하기도 한다(조철기, 2012).

지리학은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공간에 대해, 그 공간을 통해 인간과 세상이 소통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학문이다(박승규, 2011). 아동에게 어떤 장소는 그곳이 어떻게 소개되고 제시되는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Wiegand, 1993:65). 최근 초등 사회과교육 분야에서 아동들의 인식, 경험, 삶과 관련하여 일상공간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살펴 보려는 시도가 있다. 홍미화(2018)는 초등사회과 교과서의 도시 단원 내용을 분석하면서 현재 교과서에서 주로 도시의 외면적인 모습, 기능에 대한 측면을 다루는데 대해, 이 외에도 교과서에서 도시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다루면 도시가 인간과 어떻게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박재철(2019)은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 '길'과 '어린이들의 생활공간'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살펴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일상과 지리교육의 괴리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도시'의 재현에 한정적인 경향이 있는데, 보다 많

은 연구주제로 확대함으로써 일상공간과 지리교육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공간을 지리학습의 자원(resources)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등 사회과 지리교육 내용은, 가까운 주변에서 먼 곳으로 확장되도록 배열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여기서 학교는 매우 가까운 주변으로서 학교건물과 운동장은 관찰과 실습에 좋은 장소이다(신현숙, 2012). 아동들에게 학교와 운동장은 배움과 놀이, 그리고 그들 존재의 장소로서의 가치가 있다(Pike, 2016). 학교운동장을 지리적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운동장에는 자연지리적 요소(토양과 암석, 날씨와 기후, 경사와 유출물, 배수, 식생 등)와 인문지리적 요소(학교건물, 벽 등의 인공환경, 학교 주변의 교통, 학교를 유지하는데 관련된 요소 등)가 있을 뿐 아니라 학교와 관계된 환경오염과 환경개선 등의 이슈를 다루기에도 적합하다(Foley and Janikoun, 1996:222-228). 지리교육 뿐 아니라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자연관찰 활동을 할 때, 학교운동장과 주변의 동식물을 대상으로 관찰 및 기록 등이 가능하며, 이를 ‘학교의 나무 생태 지도’, ‘연못지도’ 그리기 활동 등 융합적 교육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여성희 등, 2008). 즉 새로운 나무와 화단, 풍향계와 표지판을 설치할 최적의 장소 찾기 등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학습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또한 지도그리기를 비롯한 지도 학습은 초등 지리교육의 주요 요소인데, 지도학습을 단계적으로 기획할 때, 교실의 모습을 지도로 표현하기, 위에서 본 운동장의 모습을 상상하기 등 학교 환경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윤옥경 등, 2015). 이처럼 초등 사회과 지리교육에서 학교는 아동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면서 학습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III. 초등 예비교사의 시선으로 본 학교공간

1. 초등 예비교사의 ‘학교공간 탐구’

초등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을 수행하는 4주간에 걸쳐 학교공간을 경험하고 관찰하면서 학교의 공간 배치를 파악하고 나서 그 구조를 인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학교공간의 기능적 측면을 넘어서는 초등학생들이 공간을 이용하는 모습, 그 속에 담긴 위계와 질서를 감지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로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육실습을 수행한 예비교사들의 학교공간에 대한 관찰과 경험, 이를 바탕으로 한 기록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학교공간 탐구’는 4주간의 교육실습을 시작하는 C교육대학교 4학년 ‘지리교육론’ 수강들에게 선택과제 중 하나로 부과되었으며, 수강생 중 7명이 이 과제 수행보고서로 제출하였다(표 1). 연구자는 과제를 부과할 때, 연구의 배경을 설명하고, ‘초등학교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공간구조) 파악하기’, ‘초등학생들이 그 공간들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관찰하기’, ‘자신이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돌볼 경우에 학교공간의 가능성과 한계 생각하기’, ‘지리교육 학습의 자료, 학습의 장(場)으로서 학교건물과 운동장, 학교 주변 등의 공간 활용 가능성 탐색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안내하였다.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연구자는 초등 예비교사들의 동의를 얻어 연구 자료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들의 보고서를 통해 연구자는 초등학교의 공간을 예비교사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 초등학교와 ‘나’ 초등학교의 학교공간 탐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초등 예비교사들의 학교공간 경험의 기록을 정리하였다.

초등 예비교사들은 실습기간 동안 외부자로서 학교공간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내부자로서 학습활동을 이끄는 교사의 역할도 경험한다. 7명의 예비교사 중 같은 초등학교에서 실습을 수행한 경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때로 각자 경험에 따라 주안점을 두어 살펴본 공간이 있었다. 교육실습은 같은 학교 내에서도 각자 다른 교실에서 이루어져, 같은 초등학교라는 공통의 공간을 예비교사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각자의 교실에서 개성 있게 파악한 것은 무엇인지 등 초등학교공간의 다

표 1. 학교공간 탐구 보고서의 대상 초등학교 및 예비 초등교사

초등학교	학교공간 분석 보고서	예비 초등교사	성별
가	가-1	A	남
	가-2	B	여
나	나-1	C	여
	나-2	D	남
다	다-1	E	남
	다-2	F	남
라	라	G	여

양함을 알 수 있었다. 또 이 연구를 통해 예비교사들은 학교공간에서 무엇을 인상적으로 느끼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예비교사들의 기록에는 자신들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등장하여 초등학교공간의 변화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또 초등학교 아동들의 공간과 관계하는 방식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 아동들이 공간과 관계 맺는 방식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았다.

2. 초등 예비교사들의 학교공간에 대한 관찰기록

1) ‘가’ 초등학교공간

‘가’ 초등학교는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산업단지 인근 초등학교로서 주변은 주택가이다. ‘가’ 초등학교에서 생활한 A, B 두 예비교사는 다소 상이한 측면을 중심으로 학교공간을 분석하였다. A는 통학로와 주변시설까지 아동들의 공간을 확장적으로 접근하였다. 정문 진입로와 통학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비해 후문 주변은 많은 주차 차량으로 아동들이 교통안전에 취약할 수 있음을 지

적했다. 또 초등학생들이 후문으로 통하는 길에서 연결되는 학교 주변의 근린공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학교운동장 이외에 놀이공간이 적은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이 공원은 아동들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며, 놀이공간으로서 중요함을 주목했다.

A는 중앙현관에 대해 개략적인 모습과 설치된 시설을 소개하는 정도로 기술하였는데, B는 이곳을 아주 인상적인 곳으로 기술한다. B는 타 초등학교의 중앙현관과 비교하면서 이곳이 아동들의 공간으로서 학교를 편안하고, 안정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기술을 하면서 관리와 통제의 상징처럼 보이던 공간이 아동들에게 되돌려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책 읽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설치한 책 선반의 높이와 디자인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B의 ‘학교공간 탐구’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 ‘교육공동체실’까지로 범위가 한정되었다(표 2).

표 2. ‘가’ 초등학교공간 탐구 보고서 요약

초등학교	초등 예비교사	성별	관찰기록(보고서 목차 및 기술 내용)	분량 (A4)
가	A	남	1. 학교공간 분석의 필요성 2. 학교공간 분석 - ‘가’ 초등학교공간분석: 학교연혁/학년별 교사 사용 층 및 구조/1학년2반 교실/복도 및 중앙현관(사진: 복도, 중앙현관 -각 1개)/학교 연결 동선/체육관/진입로(사진: 진입로) - ‘가’ 초등학교 주변 공간 분석 :학교의 위치와 주변 환경(산업단지)/동네 연혁/초등학교 주변 도로와 횡단보도, 통행차량(사진: 주변도로 -2개)/인근근린공원(사진: 놀이기구, 공원 -각 1개) - 학교공간과 주변 공간의 개선점 3. 학생이 좋아하는 공간	5쪽
	B	여	- 학교공간에 대한 의견 기술 1. ‘가’ 초등학교의 중앙현관 - 사진: 중앙현관(2개), 타 초등학교 중앙현관, 중앙현관에서 휴식을 취하는 아이들/독서하는 아이들, 중앙현관에 설치된 책꽂이 선반 - 그림: ‘가’ 초등학교 배치도에서 중앙현관 위치 표시 2. ‘가’ 초등학교 교실(1학년 1반) - 교탁의 위치(사진: 교실 전면) - 칠판의 종류 - 공기청정기 - 교실 안 개수대(사진: 개수대) - 안전장치가 없는 문(사진: 교실 출입문) 3. 교육공동체실(사진: 교육공동체실 내부)	7쪽

표 3. '나' 초등학교공간 탐구 보고서 요약

초등학교	초등 예비교사	성별	관찰기록(보고서 목차 및 기술 내용)	분량 (A4)
나	C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나' 초등학교 지리적 위치 - 그림: '나' 초등학교 층별 교실배치도 -본관, 별관 - 그림: 스카이뷰로 본 '나' 초등학교 - 사진: 기타 공간, 운동장, 꿈동이관, 국악실, 학생들의 신발장 - 학교개관, 학생들의 통학 상황 - 인상적인 공간 소개: 운동장과 기타 공간, 꿈동이관, 도서관, 본관과 별관 연결통로, 음악이 나오는 화장실 - 교실과 소속감 	5쪽
	D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장 공간 분석의 주안점: 아이들이 이용하는 용도 1. 운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운동장 전경, 축구골대 2. 수돗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수돗가 3. 구령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구령대 4. 놀이타: 놀이기구 및 시설, 체육시설이용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구름다리, 시소, 늑목, 그네, 정글집 - 체육시설 이용수칙(사진: 표지판) 	5쪽

학생들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에 중앙현관으로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핸드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말 의자를 타고 경주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런 모습은 나에게 큰 충격이기도 했다.

과거 나의 초등학교 시절을 돌아봤을 때 중앙현관은 금기의 공간이었다. 선생님들께서는 중앙현관은 어른들이 다니는 공간이어서 학생들은 학교의 양쪽 끝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셨다. 요즘에는 중앙현관을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가 거의 없겠지만 몇 년 전까지 학생의 것이 아니던 공간이 이제 오롯이 학생의 공간이 되었다.

(B 예비교사의 '학교공간 탐구 보고서' 중에서)

2) '나' 초등학교공간

'나' 초등학교는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이외에 도시 전체에서 자동차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어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의 생활권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다. 학생들은 주로 학교 안에서 활동하고, 방과 후 도보를 이용하여 통학을 따라 하교하지 않고, 학교에서 바로 자동차로 귀가한다. '나' 초등학교에서 생활한 C, D 두 예비교사는 각각 '나'초등학교의 특징적인 면과 운동장 중심의 학교공

간 탐구를 수행하였다(표 3).

'나' 초등학교는 일반교실 이외에 여러 특별실 공간이 있는데, 이는 C의 관찰기록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나' 초등학교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 체육활동이 어려울 때에 이용할 '꿈동이관'이라는 실내공간을 가지고 있다. 또 '국악실'은 일반교실보다 좀 더 큰 공간으로서 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규격화된 일반교실 이외에 다양한 규모와 용도의 공간이 학교 교육활동에 유용함을 알 수 있다. C는 교실에 대해 소속감을 주는 공간이라서 학생들이 '자기 학급'에는 자유롭게 드나들지만, '옆 반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 교실이 계단식 구조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평면이라서 키 순서대로 학생들의 좌석을 정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D는 운동장을 살펴 보면서 전반적으로 안전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학교문화의 변화로 구령대는 본래 기능보다는 아동들이 즐김이나 놀이장소로 이용되는 상황이거나, D는 운동장의 여러 놀이기구나 체육시설이 이용하려는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하고 여러 명이 과도하게 놀이기구를 한 번에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안전문제를 염려하였다.

또 녹목이나 정글집은 이용하는 학생 수가 적었다. 또 너무 높고 위험하여, 저학년 학생은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보았다. 이에 아동발달 과정을 감안하여 아동들이 이용할 엄두를 낼 정도의 단계적인 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놀이터 이용수칙 안내를 표지판 설치 이외에 보다 효과적으로 할 방안도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D는 '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견한 수돗가는 위생적 측면에서 잘 설치되었다고 보았고, 또 운동장에 여러 개의 축구 골대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와는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축구 골대가 2개가 아니라 총 6개 정도가 있었다.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에서는 골대가 2개라서 형들이 축구를 하고 있으면 축구를 못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운동장에 골대를 여러 개 두어서 여러 경기를 운영할 수 있으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D 예비교사의 '학교공간 탐구 보고서' 중에서)

3. 초등 예비교사들의 학교공간 분석에 대한 논의

초등 예비교사 7명의 학교공간 경험 기록을 통해 이들이 어떤 측면에서 공간을 인상적으로 인지하였는지 요약하고, 그 공간에서의 좋은 점, 개선할 점을 중심으로 학교공간에 대한 논하고자 한다.

1) 표준화된 교실, 공간 배치의 효율성과 시설의 안전성

초등예비교사들은 규격화된 교실과 복도를 관찰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놀이를 하는 모습을 다각도로 관찰하였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대체로 학령아동의 감소에 따른 여분의 교실이 있어 특별활동실로 활용하거나, 교실보다 좀 더 큰 공간들이 다목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또 교실의 좌석 배치에 따라 학습에 방해가 되거나, 특정 좌석에 앉은 학생의 학습누수 요소 등을 관찰하였다. 사각형 모양의 교실과 책상, 낮낮이가 조절되지 않는 칠판, 아동의 신체와 잘 맞지 않는 운동기구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초등 예비교사들은 교실과 학교공간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공간이길 희망한 것이다.

초등 예비교사들은 학교 내 각 시설물의 용도, 배치 및 효율적인 동선에 대해 유심히 관찰하였다. 특히 점심 시간에 급식이 이루어지는 식생활관으로의 이동은 매일 전교생이 움직이는 일이라 효율적인 동선 구성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동 공간인 복도의 색깔이나 아동의 작품 전시장으로의 공간 활용 등에 대해서는 각각 부정적,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학교시설 중 교실 밖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초등 예비교사들의 눈에 띈 것은,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신발주머니걸이, 실내화를 넣을 신발장, 수돗가 등 부속시설을 갖추어 놓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초등 예비교사들은 학교 안팎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 현황을 민감하게 살피고 있었다.

학교가 교육공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서 '안전'의 요소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책임져야 할 입장이라면 가장 우선시될 수 있는 요소일 것이다. 초등 예비교사들은 학교 내의 시설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해 인지하고, 그곳이 신속히 개선되고 수리되지 않아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또한 학교 주변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아동들의 놀이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2) 자기 공간과 타자의 공간, 공간에서의 배제와 허용

어떤 공간은 처음에 주인이 없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공간이 된다. 구령대는 학생 전체 조희나 대규모 행사에 사용되는 공간이지만 평소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줄넘기 연습을 하는 곳이 되었다. 초등 예비교사들의 관찰에서처럼 어린이들은 창의적으로 공간을 만드는데 소질이 있으므로, 학교 공간은 어떤 공간이든 어린이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 가능성이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학교공간 중에서 자신의 구획이 설정된 자기 교실과 같은 공간은 안정성과 정체성의 근간이 된다. 예비교사들의 관찰기록에서 아동들이 자기 교실과 다른 반 교실에 대해 가지는 구별된 인식은 그 예가 된다. 인간은 어디든 편안한 곳에서 안정감을 얻으므로 학교는 편안한 곳이어야 한다. 인간이 어떤 공간에 대해 가지는 안정성은 낯선 세계에서 벗어나서 친밀함이 만들어지는 출발

점인데, 자기 교실이 그런 곳이다.

초등 예비교사들은 상황에 따라 학생들에게 이동이 허용되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학교의 여러 장소는 각 기능에 따라 학생들의 입장과 사용이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선점(점유) 상황이 때때로 달라진다. 즉 누구의 장소인가? 초등 예비교사들은 운동장에서 놀이를 할 수 학생과 배제된 학생에 대해 감지하고 있었다. 운동장은 남학생들이 주로 점유하며, 학년별로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위계에 따른 배제가 나타난다.

학교에서 중앙현관은 전통적으로 학생들의 출입이 배제되는 곳이다. 초등 예비교사들의 어린 시절 기억에도 그러한 곳이다. '가' 초등학교의 중앙현관과 같이 새로운 쓰임을 가진 중앙현관에 대해 초등 예비교사들의 학교 공간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공간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IV. 요약 및 제언

학교는 아동들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곳으로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일상공간의 지리교육적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교실 뿐 아니라 학교 전체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그 공간을 이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간에서의 총체적인 경험은 어린이의 능력개발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교육과정이나 교수 학습의 변화를 통해 학교와 교육의 변화를 추구할 뿐 아니라, 교육공간의 변화를 더불어 추진함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에서 공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교실과 학교, 학교 주변 공간에 이르기까지 예비교사들의 눈으로 바라본 초등학교공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초등 예비교사들은 학교공간의 구성을 파악하는데, 교실과 학교의 여러 곳을 살펴 보면서 초등학생들이 그곳을 경험하는 모습을 관찰기록하였다. 초등 예비교사들은 외부자로서 관찰한 학교공간과 내부자로서 경험한 학교공간의 활용 방안 등을 기록했다. 이들은 교실과 학교 내 놀이 및 활동 공간, 학교 주변 지역의 공간 구조를 파악했다. 이들은 주변 지역을 포함한 학교공간을 일상생활과 학습의 접점으로 이해하고, 이 공간을 초등 지리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탐색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공간은 표준설계에 따라 정형화된 교실과 운동장, 부속시설로 구성된다. 따라서 각 학교의 물리적 특징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곳을 각 학교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학교가 자리 잡은 주변 환경, 학교 부지의 크기나 모양, 방향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속시설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또 학령아동의 감소에 따른 여분의 교실을 특별활동(교육)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표준화된 크기의 교실 이외에 다양한 규모의 공간이 있는 경우 교육활동에 쓰임새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와 학생들의 공간에 대한 인지와 경험을 살펴보면, 초등 예비교사들이 가장 자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찰 요소는 시설의 안전성과 위생의 측면, 공간 배치의 효율성 등에 대한 것이다. 초등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을 위해 현재는 외부인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초등학교에 머물고 있지만, 장차 교사가 되어 아동들을 돌보고 수업을 이끌어 간다면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를 파악하였다.

교육적 차원에서 공간은 인간에게 결속감을 주는 뿌리 내림의 맥락이므로, 공간 안에서의 인간의 존재 양식과 인간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계를 맺는지 그 방식을 주요하게 다룬다. 초등 예비교사들의 학교공간의 관찰기록에는 이러한 차원의 학생들이 학교공간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기술이 등장한다. 이들의 관찰기록 중에는 아동들이 자기 교실을 소속감과 정체성의 근간으로 보며, 학교라는 공공의 낮은 공간에서 친밀감 있는 장소를 만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예를 들어, 구명대를 아동들의 취미, 운동의 공간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초등 예비교사들의 어린 시절 기억에 뚜렷이 남아 있는 '중앙현관'에서의 배제 상황이 새롭게 변화되어, '학생들이 놀고 책을 읽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한편 운동장 축구골대의 점유에 학년 간 역학관계가 존재하지만 시설 확충을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도 확인하였다.

학교공간이 가지는 지리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 교수 학습과 관련하여 학교공간을 살펴본다면, 운동장은 놀이의 공간이지만, 지도학습 및 현장체험학습 장소로서도 관심을 둘 만한 곳이다. 학교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상과 배움이 연결되는 학습의 장으로 이해했다. 학교울타리를 넘어서는 곳도 학생들이 오

가면서 이용하는 곳이라면, 학교 교육의 연장선에 함께 놓고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며, 이로써 학교 안 밖의 공간이 지리학습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초등 예비교사들의 학교공간 관찰기록은 각 학교마다의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기술한 것이 있고, 또 예비교사 각자의 관심에 따라 다른 내용을 다루어 이러한 점이 이 연구의 자료수집의 한계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공간에 머물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학교공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공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찰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학생들의 하루 일과의 중심이며, 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 마음이 머물고 편안함을 느낄 만한 곳이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특히 아동들이 당초 설계와 달리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기 위한 학습을 기획하고 이를 학교공간의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 학생들이 하루를 보내는 학교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그 관찰 결과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註

- 1) 학교공간과 학교시설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시설은 학교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부분으로 이해된다. 학교시설은 설비와 교구 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과 교사와 운동장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한다(김신지, 2018).
- 2) 초등 저학년의 범교과 교육과정의 활동 사례로서, 영어작문으로 학교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이라는 글을 쓰고 학교를 걸어서 둘러보며 운동장(놀이터)에 배치할 것들을 간략한 도면으로 그려보는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Palmer and Birch, 2004:130-131, 그림 4, 그림 9 참고).
- 3) 서울 삼양초등학교의 경우 가파른 경사지에 학교가 자리잡고 있어 조망이 우수하므로 학생들이 옥상공간을 개방할 것을 요청하였다. 학교 당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을 개방하지는 않았지만,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 낙서를 할 수 있는 벽면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과 절충적인 지점에서 공간을 재구성하였다. 학생들로서는 공간 변화에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홍경숙 등, 2019).

- 4) 이 연구에서는 교실 안에 상존하는 상황성, 복잡성, 맥락성의 문제를 다루는 교실의 공간성에 대한 논의(한희경, 2010)나 생태학적 관점에서 교실 수업에 접근한 연구(김혜숙, 2006)의 연구와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 5) 순천에 가면 어린이들이 직접 설계 아이디어를 낸 '기적의 놀이터'가 있다(한겨레, 2016년 5월 4일자).

참고문헌

- 강기수·김정호, 2013, “초등학교공간에 관한 비판적 논의” 교육사상연구, 27(1), 1-27.
- 김경인, 2014,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 서울: 중앙북스
- 김신지, 2018, “초등학교 공간 구성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2012, “초등학생의 학교공간 경험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 2014, “초등학교 교육공간에 대한 교육적 논의”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환, 2019, “아동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습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2006, “교실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한 중등 지리 수업의 질적 사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병천, 2008, “지리교육 내용으로서 학교공간의 의미탐색” 초등사회과교육, 20(1), 19-35.
- 박성철, 2013, 「한·일 중학교의 공간구성 비교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승규, 2004, “어린이지리학의 초등 지리 교육적 의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1), 1-14.
- 박승규, 2011, “인정,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쓰여지지 않은 공간을 발견하다 -지리학이 인문학인 또 다른 이유” 대한지리학회지, 46(6), 767-780.
- 박재철, 2019,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서 길의 재현과 어린이들의 생활공간”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7(1), 15-28.
- 배지윤·김우중·이경선, 2019, “창의력과 감성 증진을 위한

- 교육공간 리노베이션에 관한 연구 -서울시 교육청의 “꿈을 담은 교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논문집, 28(2), 12-23.
- 신재철, 2013, “행복 지리적 관점에서의 초등사회과 지리교육: 아동의 ‘비밀 장소’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현숙, 2012, “체험 중심 환경교육과 연계한 학교내 외부공간 구성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어룡초등학교 교직원, 2017, 「왜 학교 공간인가: 학교 공간 혁신 1」, 서울: 북트리.
- 여성희·박은경·박병삼·김두림·황세원·최양림, 2008, 「환경 체험학습교과서」, 서울: 현암사.
- 윤옥경·김현진·남광우·한정혜, 2015, “초등지리환경교육 지도학습을 위한 스마트 교실용 학습환경 설계와 스토리텔링 인터랙티브 맵 에디터 개발” 한국지리환경교육 학회지, 23(2), 31-44.
- 이경한, 2016, “어린이가 선호하는 놀이 장소,” 「어린이의 지리학」, 서울: 푸른길, 173-186.
- 이동민, 2012, “학교에 대한 공간적 접근: 교육공간으로서의 학교,”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2(3), 73-78.
- 이지영·남상준, 2018, “모험놀이 활동과정의 초등지리교육적 함의 -‘공간만들기와 장소찾기’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6(1), 17-36.
- 이향재, 2014, “학교 공간의 장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훈, 2018, 「학교의 품격: 삶이 있는 공간이 되려면 학교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서울: 우리교육.
- 정혜영, 2014, “학교공간의 교육적 의미와 과제” 교육논총, 51(2), 151-161.
- 조철기, 2012, “비판교육학의 공간적 관심과 지리교육의 재개념화” 대한지리학회지, 47(5), 775-790.
- 한국교육사학회 편, 2011, 「역사 속의 교육 공간, 그 철학적 조망」, 서울: 학지사.
- 한희경, 2010, “대화적 공간으로서의 지리 교실 읽기-제3의 공간으로서의 국면 전환 가능성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경숙·편해문·배성호·이승곤·김태은, 2019, 「학교 공간, 어떻게 비꿀 수 있을까?: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서울: 창비교육.
- 홍미화, 2018, “초등 사회과교육에서의 도시 내용 분석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25(4), 77-92.
- 工藤和美, 2004, 「学校をつくろう!—子どもの心かはずむ空間」, 東京: TOTO出版(류호섭 역, 2009, 「학교를 만들자! 어린이를 신나게 하는 공간」, 서울: 퍼시스북스).
- Bollnow, O.F., 1971 *Pädagogik in anthropologischer Sicht*, Tokyo: Tamagawa University Press (오인탁·정혜영 역, 1990, 「교육의 인간학」, 서울: 문음사).
- Foley, M. and Janikoun, J., 1996, *The Really Practical Guide to Primary Geography*, 2nd edition, Cheltenham: Nelson Thornes Ltd. (강경원·류재명·서태열·송인근·이경한·홍기대·황홍섭 역, 2001, 「초등지리교육론」, 서울: 학문사).
- Gulson, K.N. and Symes, C., 2007, *Spatial Theories of Education: Policy and Geography Matters*, New York: Routledge.
- Palmer, J.A. and Birch, J.C., 2004, *Geography in the Early Years*, New York: RoutledgeFalmer.
- Perfahl, B., 2015, *Zuhause für die Seele: In fünf Schritten zum Wohlfühl-Zuhause*, Freiburg: Kreuz Verlag (서유리 역, 2017, 「공간의 심리학: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드는 공간의 힘」, 서울: 동양북스).
- Pike, S., 2016, *Learning Primary Geography: Ideas and Inspiration from Classrooms*, London: Routledge.
- Scoffham, S., ed., 2010, *Primary Geography Handbook*, Sheffield: Geographical Association.
- Sternberg, E.M., 2009, *Healing Spaces: The Science of Place and Well-being*,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서영조 역, 2013,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행복한 공간을 위한 심리학」, 서울: 길벗).
- Wiegand, P., 1993, *Children and Primary Geography*, London: Cassell.
- 한겨레, 2016년 5월 4일자, “순천에 가면 어린이들이 직접 설계 아이디어를 낸 ‘기적의 놀이터’가 있다”
- 교신 : 윤옥경, 2869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5,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이메일 okyoon@cje.ac.kr)

윤옥경

Correspondence : Okkyong Yoon, 28690, 2065 Cheongnam-ro, Seo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okyoon@cje.ac.kr)

투 고 일: 2019년 11월 25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1일

투고확정일: 2019년 12월 10일